

## 분단 현실의 다각적 조망:

### <동두천 기념사진>에서 <한국전쟁 기념비>까지

글. 박평중 미학·사진비평가

한국 현대사의 성격을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이 남북 분단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 같다. 분단은 해방 이후 우리의 주체적 삶과 문화를 개척해 나가려는 희망찬 노력에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겪어 보지 못했던 이질적인 국가구조를 우리 땅에 끌어들이었다. 이후 모든 것은 분단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게 되었다.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서 개인의 삶이란 정상적으로 흘러가기 어렵다. 극한으로 치달았던 이념 대립이나 정치적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개인의 일상적인 삶조차 온전할 수 없었던 것은 모두가 분단이라는 기괴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래 하나이어야 할 것이 갈라져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사태를 분단 이후의 우리 현대사가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다. 분단 상황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의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긴장과 대립 구조는 점차 본래부터 있어 왔던 조건처럼 인식되어 가는 것 같다. 분단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1980년대부터 강용석이 줄기차게 매달려 온 문제도 분단 상황을 긴급한 사태로 인식하지 않는 나태하고 안이한 일반의 인식에 일침을 놓는 것이었다. 미군기지 근처에서 접대부로 살아가는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초상 작업 <동두천 기념사진>에서부터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되면서 폐허가 된 매항리 농섬의 모습을 담은 <매항리 풍경>, 민통선 부근의 선전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초상을 모은 <선 전촌>,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세워 놓은 전쟁 기념비의 현재적 의미를 반추하는 <한국전쟁 기념비>에 이르기까지 강용석의 문제의식은 집요하게 한국전쟁과 분단의 상흔에 걸쳐 있다. 우리는 분단 문제를 결코 모른 척 덮어둘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동두천 기념사진>은 분단 문제에 대한 강용석의 문제의식이 표출된 초기 작업으로 미군을 상대로 삶을 꾸려 나가는 한국 여성들의 우울한 초상을 보여 주고 있다. 냉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으로 인해 등장한 우리 사회의 기이한 풍속도라 할 수 있겠다. 이 작업은 작가가 기념사진을 찍어 주는 사진사로 동두천에 '잠입'하여 미군과 한국 여성 커플들의 모습을 통속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것이다. 이 작업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자신을 정성껏 꾸민 것처럼 보인다. 진한 화장에 서양식 옷차림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흑인 병사들을 위해 머리 모양을 흑인 여성처럼 꾸민 경우도 있다. 커플들은 무척 정겨운 표정이어서 국경을 초월한 이 만남에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다. 진한 애정 표현을 스스로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의 자발적인 만남은 매우 자연스러운 관계로 읽히기도 한다.

작업 과정에서 작가의 개입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기념사진을 원하는 고객들 스스로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그들 스스로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커플들은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념사진을 선택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어떤 여성은 키스하는 흑인 병사 앞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며 마지못해 키스를 받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여성은 즐거워하는 흑인 병사의 무릎 위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표정은 매우 대조적이어서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상반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들은 비록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인상을 준다. 작가는 예외에 해당하는 몇 장의 사진, 즉 커플들의 관계가 불편해 보이는 사진에서 냉전 논리의 뒤뜰린 결과물을 보고 싶어 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나타나듯 이 커플들은 서로에게 아주 만족해하고 있으며, 비록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관계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여성들은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군 병사들을 대하는지도 모르겠다. 빈곤한 조국이 주지 못한 것을 풍요한 침략자가 줄 수 있다면 국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조국은 가난한 그녀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 주었던 말인가. 하여 이 여성들의 모습은 분단을 야기한 외세에 오히려 의탁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주권국가의 가련한 초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매향리 풍경>. 이 작업에도 역시 <동두천 기념사진>처럼 분단 문제를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 분단 문제를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 주체만 놓고 본다면 사태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분단을 필요로 하는 주변 세력들의 이해 관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분단은 냉전 질서의 부산물인 것이다. 하여 강용석은 분단 문제를 냉전 논리의 창을 통해서 본다.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그 상징이다. 매향리 농섬은 미 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곳, 요컨대 가상의 전쟁터이다. 수십 년간 폭격을 맞아 폐허로 변해 버린 이 섬은 동아시아 냉전 구도의 각축장인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극명한 메타포라 할 수 있다. 해안 곳곳에 함부로 방치되어 있는 포탄의 잔해들, 폭격을 맞아 무너져 내린 야산과 조각난 바위들은 가상의 전쟁터인 이 섬에 쏟아졌던 폭력의 흔적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가 잠재적으로는 이곳처럼 가상의 전쟁터 아니었던가.

<매향리 풍경> 이후 작가는 민통선 유역으로 눈길을 돌린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산재해 있는 군사 시설물과 대북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선전촌의 모습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적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거대한 바위를 세워 놓은 모습은 마치 선사시대의 유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거칠고 황량한 벌판에 갖가지 형태로 서 있는 수미터 높이의 돌덩이들, 웅장한 자태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어울리지 못하는 기괴한 모습이다. 쉽게 무너뜨리기 위해 위태로운 모양으로 올려놓은 육중한 바위 덩이에도 전쟁의 후유증은 남아 있다. 한편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한 선전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업한 초상 작업 <선전촌>에서도 작가는 분단의 후유증을 본다.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지역이자 지금도 민간인은 출입

할 수 없는 금단의 땅, 정부의 이주 정책에 따라 들어와 살고 있으면서도 반쪽자리 자유밖에는 누릴 수 없는 기이한 땅이 이곳이다. 이 마을들이 대북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한 선전용이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선전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 고유의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분단 문제에 집요하게 천착해 온 강용석의 작업은 <한국전쟁 기념비>에 와서 분단을 둘러싼 국제정세 및 일반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분단의 현재 모습을 읽어 내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냉전 구도가 와해됨으로써 남북분단을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변했으며, 극심했던 이념 대립도 점차 느슨해진 시대가 된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이념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모든 가치를 이념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복잡한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전히 이념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이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중 있는 다른 가치들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이런 변화를 작가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쇠락에서 찾아낸다. 한국전쟁 이후 이 요지부동의 이데올로기는 근 반세기 동안 한반도 이남 사람들의 머릿속을 망령처럼 지배하고 있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어 보았던 세대에게 반공 이데올로기는 그야말로 국시였다. 그러나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정언 명령과도 같은 이 이데올로기는 점차 실효성을 잃어 가고 있다.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의 모습에서 작가는 이러한 징후를 읽어 낸다. 전쟁 기념비는 끔찍했던 전쟁의 기억을 후세대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 그것을 집단적 기억으로 보존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그 배후에 깔려 있는 논리는 반공 이데올로기이다. 이 기념비들은 공산주의와 싸웠던 참전 군인들의 모습을 영웅처럼 위대하게 형상화해 놓았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전언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념비들은 이제 더 이상 위엄과 권위를 갖지 못한다. 본래 권위는 대상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권위와 위엄은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대상에 심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기념비가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조형물들에 부여했던 가치를 철회했다는 뜻이다. 형체는 웅장하고 위압적이지만 권위도 없고 위엄도 없는 초라한 조형물로 전락한 것이 전쟁 기념비이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전쟁 기념비가 세워진 공원에서 전쟁의 아픈 기억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산다. 산책을 하거나 기념사진을 찍거나 무심코 지나쳐 가는 것이다.

기념비적 장소가 지녔던 가치의 퇴색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프레임의 효과를 활용한다. 위압적이던 전쟁 기념비를 프레임 구석에 배치하거나 불품없는 옆모습, 또는 뒷모습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의미 없는 단순한 조형물처럼 보여 주는 것이다. 위엄을 갖고 사람들을 압도해야 할 기념비들을 주변의 다른 피사체들과 뒤섞어 시각적 힘을 잃게 만드는 전략도 동원된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기념비에 관심을 두는 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이 엄숙한 조형물에 진

지한 시선을 보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거나 그냥 지나칠 뿐이다. 전쟁 기념비는 공원을 장식하는 일개 조형물로 전락한 것이다.

강용석이 분단 문제에 천착하여 진행해 온 작업들은 시선을 잡아 끄는 힘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동두천 기념사진>은 피사체의 특수성 에서 비롯된 시각적 긴장이 있지만 후속 작업들은 매우 은은하고 간결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밋밋한 중성 톤과 단조로운 프레임 구성은 작가가 분단의 현실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마저 풍긴다. 이러한 관점을 취함으로써 그의 사진은 당위를 강변하는 설득의 언어에서 벗어난다. 분단의 현실이 진정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면 그 점을 조급하게 웅변조로 말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사진은 단지 분단의 현실을 냉엄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어쩌면 그것밖에는 하지 못한다.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관점이 진정 온당하다면 사진은 굳이 수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다. 강용석이 구사하는 사진 언어가 나지막한 율조림에 가까워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가 이처럼 낮은 목소리로 힘차게 전하고 있는 바는 우리 모두가 분단의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암울한 메시지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엄존한 상황인 것을.